

	<h1>보도자료</h1>		(배포) 2018. 12.7(금)
	12월 7일(금) 11:3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		
담당	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	과장 유희중, 서기관 이가형 (044-200-2742, 2743)	

국무조정실,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
 - 원활한 국정추진 지원을 위한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 방안 논의 -

- 정부는 **12월 7일(금)** 오전 10시 30분,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(45개) 감사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
 - 이번 회의는 정부 중반기를 맞아 **원활한 국정운영**을 뒷받침하기 위한 **공직기강 확립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
- **노형욱 국무조정실장**은 최근 여러 가지 공직자의 비위로 인해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,
 - 공직자의 사소한 일탈과 작은 비위행위도 정부 전체의 도덕성으로 연결되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여,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.
 - 아울러, 정부 중반기를 맞아 공직자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, 이를 위해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집중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- 또한 최근 KT 통신구 화재사고, KTX 오송역 단전사고,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**생활밀접 서비스 제공관련 사고**가 연달아 발생하여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,

- 에너지, 교통, 통신 등 **민생관련 서비스 담당 부처**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, 비상대비 태세 등 **대응체계 전반**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**범정부 공직기강 확립방안의 중점 추진 사항**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△ 첫째, 범정부 차원의 **공직기강 점검활동**을 강화하고 음주운전·성비위·갑질행위 등 **품위훼손 행위**를 엄단함으로써 공직사회 **업무집중 분위기 조성**
 - △ 둘째, 비위의 근원이 되는 **잘못된 업무관행 일소**, 업무지연·책임회피 등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등 **적극적인 업무처리 독려**
 - △ 셋째, **비위 취약분야**, 공직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, **조사·감찰기관 등의 자정노력 강화**를 추진
 - △ 넷째, 국가중요시설·다중시설 등의 **사고·재난 대응태세 점검**을 강화하고, 에너지·교통·통신 등 **국민생활 밀접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**을 통해 사고예방
- 이를 위해 **공공부문 전체**가 내년 설명절까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기강해이 예방활동, 점검활동 등 **공직기강 확립활동**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- 또한, 책임 회피 등 공직자의 복지부동, 소극행정 행태는 엄단하는 한편, 일을 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**발굴하여 포상**하고,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**과감히 면책**하는 등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**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**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
- 또한, 이날 회의에서는 반부패 주간(12.3~14)에 맞추어 ‘**공직자 청렴도 제고방안(권익위)**’ 및 동절기 재난안전 사고 대비 ‘**안전감찰 추진 계획(행안부)**’도 함께 논의했습니다.